대법원, "미인도 위작 수사는 잘못없다"

2017년 재정신청 제기 2년여 만에 결론 내
사자명예훼손 ·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제기
'진품 주장'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재고소 각하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지난 2017년 9월 대법원에 항고한 지 1년10개월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천 화백의 딸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김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미인도 진위 여부 관련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제외하고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며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에 시작됐다. 당시 천 화백은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소장한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라는 결론을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돼왔다.

김 교수는 지난 2016년 4월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전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진품이 아니라는 작가 의견을 무시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천 화백 명예를 훼손하고, 국회 등에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제출했다는 취지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으로 주장하면서 전시하는 등 공표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마리 전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1명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김 교수 측은 수사결과에 반발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김 교수 측은 2017년 6월 천 화백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및 국회 보고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김 교수 측은 "검찰은 대부분 '허위인식이 없었다'는 변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며 "불기소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기소 처분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추가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 공소를 제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했고, 김 교수 측은 즉시 항고했다.

이와 별개로 김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마리 전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4명을 2017년 6월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법적 분쟁이 계속 중임에도 같은 해 4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위작 미인도를 공개 전시하면서 천 화백의 작품처럼 인식하게 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미인도 작품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혐의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미인도 주변이나 전시장 내에 작품 저작자가 누구인지 따로 표시된 곳이 없고, '진위 여부 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하며 공개 취지를 밝히는 등 별도의 이름 표시 없이 미인도 작품 자체를 전시했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뉴시스

16개의 우수 공연이 한자리에!

전주 · 익산 · 남원 · 정읍서 즐기는 '전북도 공연예술 페스타'

'2019 전라북도 공연예술 페스타(JBPAF)'가 오는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도내 7개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지역공연예술단체의 창작성과 우수성을 개발하고 도내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공연예술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재단은 기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통합운영하던 공연장을 국립무형유산원,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 익산솜리예술회관, 익산예술의전당, 정읍사예술회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으로 분산·확대했다.

재단은 올해 초 전라북도의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 총 42개 단체 중 서류심사, 공개 PT 및 인터뷰 심사를 통해 총 16개 단체를 선정했다.

전통예술분야로는 사단법인 동남풍, 수제천보존회, 임실필봉농악보존회, Interactive Art Company 아따가, 음악분야로는 소리문화창작소 신, 선이오페라앙상블이, 연극분야로는 사단법인 동화기념사업회, 극단까치동, (유)뮤지컬수컴퍼니, 남원연극협회, 극단자루가, 무용분야로는 손운숙 이마고 발레단, 호남살풀이춤보존회, 전주시무용협회, 고명구춤익재가 페스타에 참여한다.

한편, 이번 페스타의 티켓 가격은 5,000원부터 50,000원으로 인터파크티켓(www.interpark.com / ARS 1544-1555)에서 예매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문예진흥팀(063-230-74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평일 야간에도 전주한옥마을 골목길 문화공연 즐긴다

12월까지 주 5회 지역 예술가들의 문화공연 '한 때를 가치하다' 펼쳐져

국가대표 관광지 전주한옥마을 골목길에서 평일 야간에도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간시간에 한옥마을 골목길 문화공연 '한 때를 가치하다'가 펼쳐진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주민주도 조직체인 한옥마을비빔공동체 주관으로 열리는 이 공연은 태조로 쉼터, 경기전 동문 입구 등 16곳의 골목길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특히 한옥마을 구석구석의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알리고, 야간 문화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공연은 한옥마을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지역 예술가들과 만남을 통해 준비과정을 거쳐 의미를 더했다.

8월의 경우 '모깃불 필 무렵'을 부제로 동학혁명기념관 앞에서 행꿈마 마술, 실개천 쉼터에서 어쿠스틱밴드 검은바나나의 노래 공연을 펼치면서 가족단위로 방문한 여행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다.

또한 가온의 한국적이면서 이국적인 악기연주, 그린나래의 국악 중심의 연주, 김민숙 명창의 창과 민요 공연, Max of Soul의 비보잉 공연, 메조 기타솔로의 통기타 공연, 비빔연희패의 풍물공연, 비빔오케스트라의 목관·현안·금관 3중주, 토리밴드의 포크락 공연, 플룻독주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월별 계획에 따라 펼쳐진다.

세부적인 공연 일정은 매주 전동성당 입구 맞은편과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앞에 위치한 한옥마을 행사안내판에 공연시간과 장소를 게시할 예정이다. 그간 한옥마을에서는 마당창극과 마당놀이 등 상설공연과 문화재 야행 등 금요일이나 주말을 중심으로 열렸으나 이번 골목길 문화공연이 평일 야간에 펼쳐지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또 다른 즐길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중 한옥마을비빔공동체 이사장은 "평일 야간에 펼쳐지는 공연과 주민들의 골목길 이야기가 어우러져, 주민들과 관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한옥마을 방문객들이 뜻밖에 마주친 공연을 보고, 전통과 문화가 함께하는 한옥마을에서 좋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는 한옥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 지속가능한 여행지로 만들기 위해 한옥마을 원주민과 어진포럼·소상공인연합회·숙박협회·한복협회 등 업종별 7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 1월 출범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관람 신청하세요"

9월 17~20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서 공연… 이달 30일까지 관람 신청 받아

청소년 예술교육을 위한 새로운 발상 '2019 전북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공연관람 신청을 받는다.

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 전북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이 9월 17~20일까지 4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연장 및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은 학생에게는 예술을 매개로 한 어울림의 장을, 교사에게는 성과 공유의 장으로서 학교예술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페스티벌은 분야별 참가학교 무대 공연을 중심으로 학생·교사·예술인의 협연 무대, 야외 체험부스 등으로 운영된다.

무대에 오르는 학교들은 학교예술교육지원지정학교들로 오케스트라, 난타, 뮤지컬, 연극, 사물놀이, 댄스, 합창, 비보이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야외 체험부스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인바디 측정, 흡연예방교육, 금연체험 등과 건강간식 및 건강 밥상차리기 등을 통한 영양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단체 관람을 희망하는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30일까지 도교육청 인성건강과로 사전 관람 신청을 하면된다. /장은성 기자